

‘국제도시’ 표방 광주, 각종 국제행사 앞두고

불법 옥외광고물 방치

남구·북구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안해

광주시 각 자치구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소홀하거나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옥외광고물 관리·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거리 곳곳에 난무할 뿐만 아니라 거리 미관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가 최근 공개한 남구·북구의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구와 북구는 지난 2007년 불법광고물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

으나, 이에 따라 취해야 할 지역 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 대신 양성화를 유도하는 안내장만 발송했다. 계획만 수립한 뒤 구체적인 현장 지도는 포기한 셈이다.

제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구는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허가(신고)된 수시분 120건 355만6000원과 지난해 88건 293만8000원 등 모두 208건 649만4000원을 미부과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남구에 미부과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을, 북구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세입을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이들 자치구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관한 미시시, 옥외광고업 등록신고 민원처리 소홀, 지

정계시대(벽보판) 관리·운영업무 개선 노력 미흡, 광고업 종사자 교육대행 등 위·수탁 협약서 작성 업무 소홀 등을 각각 지적받았다.

광주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계도·정비할 방침이다.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업·주거·공업지역 등에 맞춰 표준모델을 5개 자치구에 배포해 순차적으로 광고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단속으로 인한 점포주와의 마찰을 우려해 각 자치구들이 형식적인 계도만 하면서 불법 광고물이 거리 곳곳에 넘쳐나게 됐다”며 “규격·설치 장소·개수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점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더위 이기는 ‘특전캠프’

4일 담양군 무정면 제11공수여단 황금박주부대에서 열린 ‘2010 하계 특전캠프’에 참가 한 학생들이 ‘참호 격투’를 통해 불법 더위를 이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4분 해질 19시 32분 달돋이 00시 14분 달질 15시 12분

덥다, 더워!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	기온
광주	오후한대비 26/33℃
목포	오후한대비 25/32℃
여수	오후한대비 25/29℃
완도	구름맑음 25/32℃
구례	오후한대비 25/34℃
애남	구름맑음 25/32℃
장흥	오후한대비 25/32℃
고흥	오후한대비 25/33℃
순천	오후한대비 25/33℃
영광	구름맑음 25/33℃
진도	구름맑음 25/33℃
전주	오후한대비 25/34℃
남원	구름맑음 23/33℃
옥산도	구름맑음 24/29℃

〈오전〉 바다

지역	중량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1.5m

〈오후〉 바다

지역	중량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08:45	02:2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1.5m	22:02	14: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목포 03:37	10:1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17:20	23: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6/32	25/31	24/33	25/32	25/31	25/32

수능 D-100 ... 건강관리가 ‘성패’ 좌우

수험생 폭염 속 여름나기 ‘비상’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수험생들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여름 무더위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능(11월18일)을 100여일 남겨놓은 수험생들은 건강 관리를 시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문가와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체력·집중력까지 저하되는 만큼 별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충분히 잠을 자기를 권장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두통이나 현기증, 피로를 느껴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점심식사 후 20~30분간의 낮잠은 오후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밤 시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도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새벽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을 이용한 20~30분 자전거타기, 산책 등의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습도와 온도가 높을 때는 삼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침식사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탄수화물류가 충분히 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하며, 먹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식사는 육류·생선·해초류·야채·곡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육류는 한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육류를 싫어할 경우는 반드시 콩이나 두부를 곁들여 먹고 계란이나 우유를 마셔 영양결핍을 방지해야 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 운동량이 적은 여름철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박달나무 한의원 강채미 원장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단백질·비타민을 보충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많다. 마늘·파·토마토·돼지고기·장어 등을 먹어 주는 것이 좋다”면서 “또 한 달이 더럽다고 자주 찬물로 얼굴과

손을 씻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사비리’ 교장·공무원 등 서울서 26명 무더기 퇴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 26명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을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소주 ‘반잔’으로 드세요”

복지부 건전음주 캠페인 ‘2분의 1잔’ 대학가 배포

“술 마실 때 2분의 1잔으로 드세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젊은 연령층의 음주율 감소를 위해 ‘2분의 1잔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소주잔의 절반이 유리로 채워져 있는 ‘2분의 1잔’(사진)은 음주량을 반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2만4000개가 제작돼 전국 대학가 주변의 술집·식당 600곳에 보급됐다.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20조9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성인 음주자 3명중 1명은 사망, 질병, 사고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음주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실천하는 업소에는 ‘건전음주 실천업소’라는 현판을 부착하게 된다. 연합뉴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는 개선 아닌 개악”

비정규교수노조 등 회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이던 전임강사 제도를 없애고 절반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5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를 쓰겠다

는 것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정부가 교수 사회 전체를 불안정 노동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임교원을 더 뽑도록 해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로 가는 통로를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신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파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대안으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물놀이 용품 36%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

상당수의 물놀이 용품에서 인체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경부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27개 대상 제품 가운데 74%인 20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적발 비율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물놀이 용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

이태리 좌탁·식탁 특별전 50% 할인

● 좌탁·식탁 4인용·2인용·1인용 등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 좌탁·식탁 4인용 42cm, 2인용 38cm, 1인용 35cm 등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 좌탁·식탁 4인용 42cm, 2인용 38cm, 1인용 35cm 등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 좌탁·식탁 4인용 42cm, 2인용 38cm, 1인용 35cm 등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수완지구 마지막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수완지구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 수완지구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 수완지구 프리미엄을 잡으세요!

수완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수완지구 프리미엄	수완지구 프리미엄	수완지구 프리미엄	수완지구 프리미엄
150~200평	200~300평	300~400평	400~500평